



2022.8.8.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8. 8.

Vol. 50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8월 8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이상직

요약

- I. 선발 사회의 이상과 현실
 - II. 네 가지 분배 기준
 - III. 성과 대 노력
 - IV. 패자의 우는 소리?
 - V. 선발 시스템의 빛과 그늘
- 참고문헌

•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인가?

- 최근 한국사회는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능력주의'가 언급되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능력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음.
- '능력주의'라는 말로 상반되는 담론이 제기되는 것은 '능력주의'라는 말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임.
- 이 글은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로 확인한 한국인의 '자원분배기준' 인식을 분석해 '능력주의'의 의미를 구체화해보려는 시도임.

• 주류는 '성과'와 '노력'

- 15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3명은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성과'와 '노력'을, 4명 중 1명은 '필요'나 '균등'을 꼽음.
- '성과+노력' 비중에서 남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과'에 한정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음.

• '성과'와 '노력'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괴리

- '성과'를 현실의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절반 이상인 것에 비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30%가 되지 않음.
- '노력'을 현실의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30%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절반 가까이 됨.

• '노력주의자'에 대한 두 가지 가설

- '노력' 강조를 구조적 불평등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의 항의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집단의 변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사회적 지위 변수와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노력주의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지위가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음.

• 선발 시스템의 빛과 그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 '현실은 성과주의, 이상은 노력주의'라고 하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성과 지향의 표명이 오늘날 한국인이 말하는 '능력주의'의 모습임.
- '노력해도 별수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으면서도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학교나 회사의 선발 레이스에 자신과 자녀를 참가시켜 온 현실을 반영함.
-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한때 역동을 가져온 한국 사회의 선발 시스템이 이제는 점차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 노력-성과 고리는 모두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보다는 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더 잘 형성될 수 있음.

I. 선발 사회의 이상과 현실

□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인가?

- 최근 한국사회에서 자원 분배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한편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이 등장함.
 -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능력주의’라는 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능력주의’가 언급되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능력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임.

□ ‘능력’이란 무엇인가?

- ‘능력주의’라는 말로 상반되는 담론이 제기되는 것은 ‘능력주의’라는 말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임
 - 능력으로 표현되는 조건부 분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논외로 한다면, 능력주의 논쟁에서 쟁점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이나 ‘성과’의 지표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됨.
 -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은 ‘노력+(성과)’을 능력으로 간주함.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능력의 상당 부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함. 즉 그것은 과거 신분제에서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
-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검토해 ‘능력’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함
 - 이 글은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이상과 현실 차원으로 검토해 ‘능력’의 의미를 구체화해보려는 시도임.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임.
 - 첫째, 한국인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 둘째, 한국인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자원이 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II. 네 가지 분배 기준

□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국회미래연구원이 2021년에 수집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문항 두 개에 대한 17,357명의 응답 값이 담겨 있음¹
 - 한 사회에서 부와 지위를 분배하는 기준을 ‘자원분배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음. 이 문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분배기준과 실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자원분배기준을 묻고 있음.²

[표 1] ‘자원분배기준’ 인식을 묻는 문항(이상과 현실)

D17.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누가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 ①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D18. 그렇다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현실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②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③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
- ④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

출처: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조사) 조사표(허중호 외, 2021: 674)

◦ 자원 분배의 네 가지 기준

- 보기 1번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떠올리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일 수 있음. 결과로서의 능력을 뜻함.
- 보기 2번은 많은 사람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기대하는 것이지만 능력과 같은 말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음. 일종의 과정으로서의 능력을 뜻함. 근대 사회의 신념 체계에서는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음. 그러나 노력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능력’이라는 말의 모호함이 생겨남.
- 보기 3번은 자원분배기준으로 ‘필요’를 표현한 것이고, 보기 4번은 ‘균등’을 표현한 것임. 필요와 균등은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기준일 수도 있으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제’ 사회에서는 앞의 네 가지 기준이

1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8,162개임. 이들 가구의 가구원 19,465명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 18,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이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17,357명임(허중호 외, 2021: 36). 데이터셋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허중호,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1 [데이터 세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5-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003-V1.0>.

2 이 문항은 일본에서 195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마다 조사된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조사’(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Survey, SSM)에서 활용된 문항을 참조한 것임. 이 글의 테마 및 분석 방식은 SSM 자료로 일본 사회의 계층 구조를 분석한 사토 도시키의 저서(2014[2000])를 크게 참조한 것임.

어느 정도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음(마일즈, 1992[1989]). 복지국가의 논리에도 ‘필요’와 ‘균등’의 기준이 일정 수준 포함되어 있음(에스핑-안데르센, 2007[1990]).

- 네 가지 기준은 서로 결이 다르지만, 네 가지 모두 자원분배기준으로 ‘신분’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공통됨.

□ 측정: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인식

- 이 글에서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인식’임
 -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의 분배 기준은 이렇 것이다’라고 떠올리는 이미지를 측정한 것.
 -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인식을 ‘이상’과 ‘현실’로 구분해 측정함으로써 ‘능력’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자유주의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
 - 성과와 노력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조건이 기준인 반면 필요와 균등은 ‘현재 어떠한가’라는 상태가 기준임.
 - ‘성과’와 ‘노력’은 엄연히 서로 다른 기준이지만 조건부라는 의미에서 둘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함. 의도와 결과의 차이 또는 과정과 결과의 차이일 뿐 대상의 어떠한 의지나 행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조건부임.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것을 뜻함.
 - 성과·노력과 필요·균등은 각각 자유주의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에 대응함. 다른 말로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에 대응함(마일즈, 1992[1989]). 자유주의 논리에서 부의 분배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전제로 함. 즉 노동력의 상품 가치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고 봄. 반면 민주주의 논리에서 개개인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상품이 아닌 필요나 형평 같은 기준이 인정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즉 시민으로 여겨짐. 이러한 전제에서 부의 분배는 개인의 시장 내 위치가 아닌 권리라는 보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III. 성과 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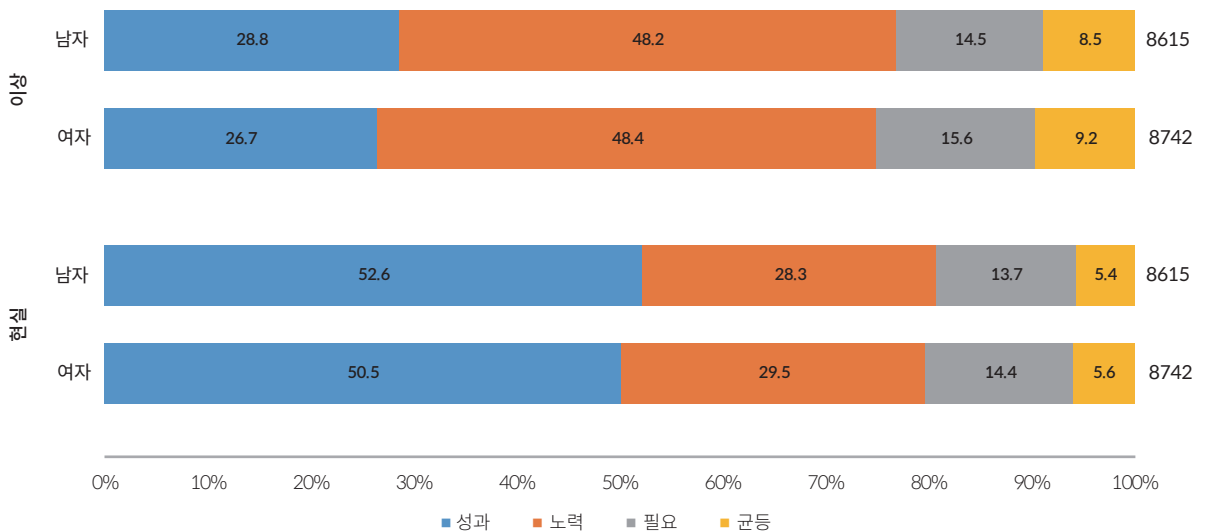
□ 주류는 ‘성과’와 ‘노력’

- 15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필요’나 ‘균등’을 꼽음([그림 1])
 - 약 4명 중 1명이 ‘필요’나 ‘균등’을 이상적인 분배 기준으로 보고 있음.
 - ‘필요’나 ‘균등’을 꼽은 이들의 비중인 25%라는 숫자를 많은 것으로도 적은 것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가 경쟁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김희삼, 2018)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됨.³

3 직접적으로 비교할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좀 더 체계적인 비교 연구의 맥락에서 이 숫자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비교 사회적 맥락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 역사적 변화 맥락에서도 볼 필요가 있음. 일례로 1995년에 일본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남녀 평균 약 15%가 ‘필요’나 ‘균등’을 이상적인 자원분배기준으로 꼽은 바 있음(도시키, 2014[2000]: 24). 한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라는 문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2009년 이래 낮아지고 있음(2009년: 78.3%, 2014년: 65.0%, 2021년: 31.3%). 상세 정보는 “2003-2021 KGSS 누적 코드북” 참조(<https://kgss.skku.edu/>).

- 이러한 응답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보편 대응의 필요를 체감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 향후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어쨌든 주류는 ‘성과’와 ‘노력’임
 -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노력’을 꼽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고, 다른 25% 가량이 ‘성과’를 꼽음.
 - 이상적 분배 기준의 주류는 ‘성과’와 ‘노력’임.
- 눈에 띄는 것은 남녀 차이임
 - ‘성과’와 ‘노력’을 함께 봤을 때에 남녀 차이가 크지 않으나 ‘성과’에 한정하면 남성의 응답 비중이 여성의 그것보다 다소 높음. 대신 여성은 남성보다 ‘필요’를 꼽은 이들이 많음.
 -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넓게는 근대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과’의 주체로 인정받아 온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과 현실(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이상과 현실의 차이

- ‘성과’와 ‘노력’을 둘러싸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그림 1])
 - ‘성과’를 현실의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절반 이상인 데 비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30%가 되지 않음.
 - ‘노력’을 현실의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30% 정도 되는 데에 비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절반 가까이 됨.
 - 이상적으로는 노력에 따른 분배가 맞는데 현실에서는 성과 기준이 통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노력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과에 따라 자원이 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현실 인식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이상 인식에서 남녀 차이가 다소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상-현실 간격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IV. 패자의 우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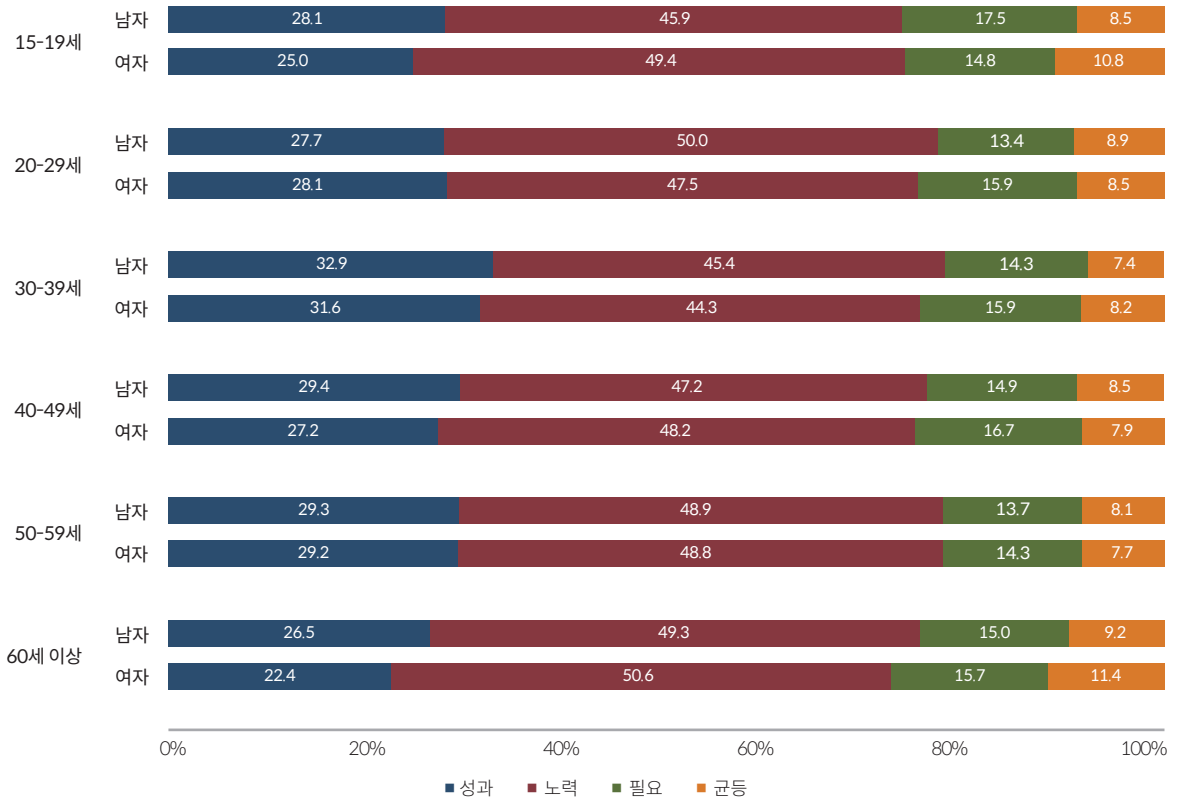
□ 이상 인식과 현실 인식의 차이

- 성과와 노력은 어디가 다른 것일까?
 - 노력이 이상적 분배 기준이라는 응답은 ‘노력으로 평가해줬으면 한다’는 심정을 드러낸 것임.
 - 결과가 혹여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라든지, 절대 점수가 낮더라도 ‘지난번보다는 잘했다’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음.
 - 보통은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의도와 과정에 주목하자는 것임.
 - 성과와 노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치관이 더 반영되어 있는 이상적 자원분배기준 인식에 초점을 맞춰 자원분배기준 인식과 몇 가지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노력주의자 가설 1: 구조적 제약에 대한 문제제기

- 남녀 차이
 - 기본적으로 남녀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앞서 여성이 약간이나마 ‘성과’를 덜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그림 1]).
 - 이를 두고 여성이 구조적 불평등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연령대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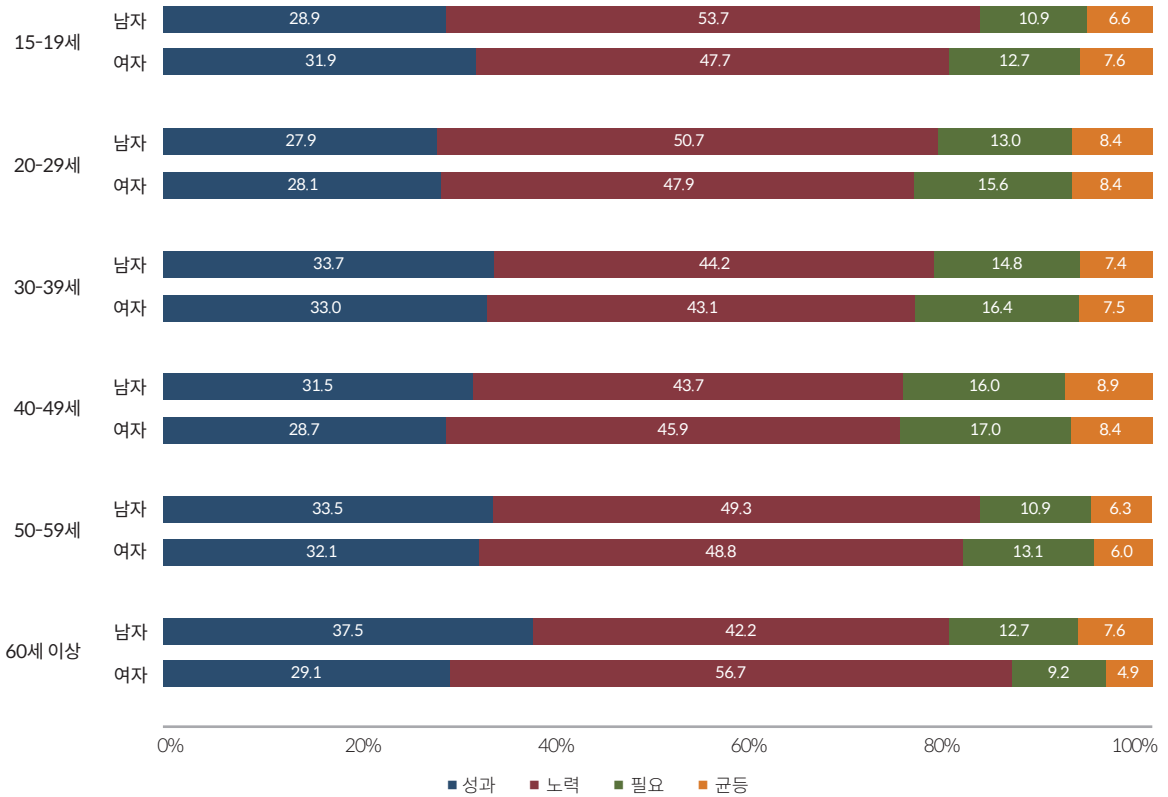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나이 차이

- 같은 식으로 나이 변수와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음. 한편으로 젊은 집단이 노력-성과의 괴리를 느낄 수 있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감각을 청년이 강하게 느낄 수 있음. ‘노오력’이라는 표현(조한혜정 외, 2016)이 이를 반영함.
-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여성의 경우) 과거로 갈수록 구조적·사회적 제약이 더욱 강해 (일례로 교육 기회가 제약 되어) 고령 집단에서 노력-성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느꼈을 수도 있음.
- 결과([그림 2])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는 않음. 성과와 노력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을 강조하는 연령대는 20대~50대로 주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이들임. 이들에게는 일정한 사회생활 경험이 이상적 분배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됨.
- ‘성과’를 가장 강조하는 집단은 30대 남성이고, 가장 적게 강조하는 집단은 10대 후반 여성과 60세 이상 여성임. 남녀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연령대는 20대와 50대임.
- 이러한 결과는 전연령대에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짐작됨.

[그림 3] 대졸자의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연령대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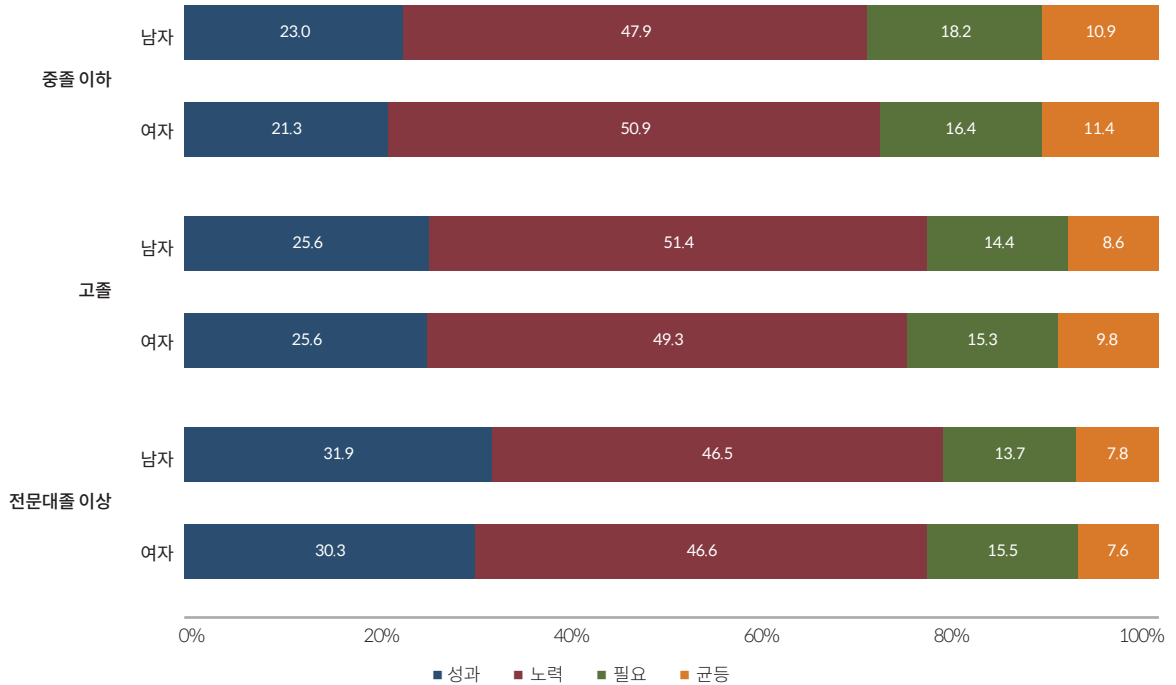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대졸자로 한정해서 본 성별, 연령대별 차이

- [그림 3]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이룬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대졸자에 한정된 그림임.
- 전반적으로, 특히 50세 이상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대졸자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더 높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흥미로운 점은 1970년대생인 40대에서 능력 강조 경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임. 이들 중 25%는 '필요'와 '균등' 기준을 지지함.
- 이에 비해 30대에서는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함.

[그림 4]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교육수준별, 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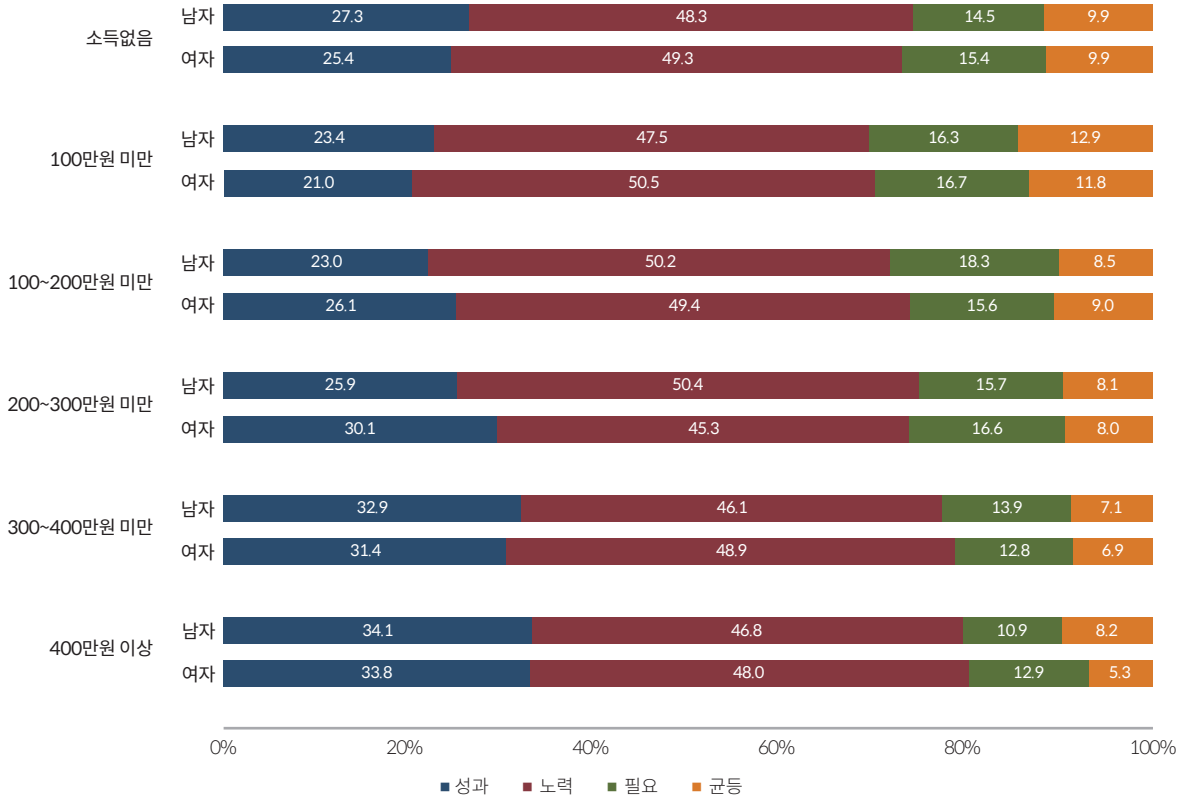
□ 노력주의자 가설 2: 성과를 올리지 못한 집단의 변명

- 구조적 불평등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노력주의자'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함
 - 경쟁 체제의 경계에 또는 경계 밖에 있어서 이른바 회피적 의미로 노력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애당초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변명이라고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음. 이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으로 최근 들어 '능력(에 따른 차별)'을 강조하는 이들이 은연중에 가정(오찬호, 2013)하고 있는 전제이기도 함.

□ 교육, 소득, 직업 지위에 따른 인식 차이

- 교육 지위에 따른 인식 차이([그림 4])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과'와 '노력'을 합친 비중이 큼. 특히 '성과' 비중이 커짐.
 - 남녀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고졸자를 제외한 두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과'를 강조하는 비중이 약간 높음.

[그림 5]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소득수준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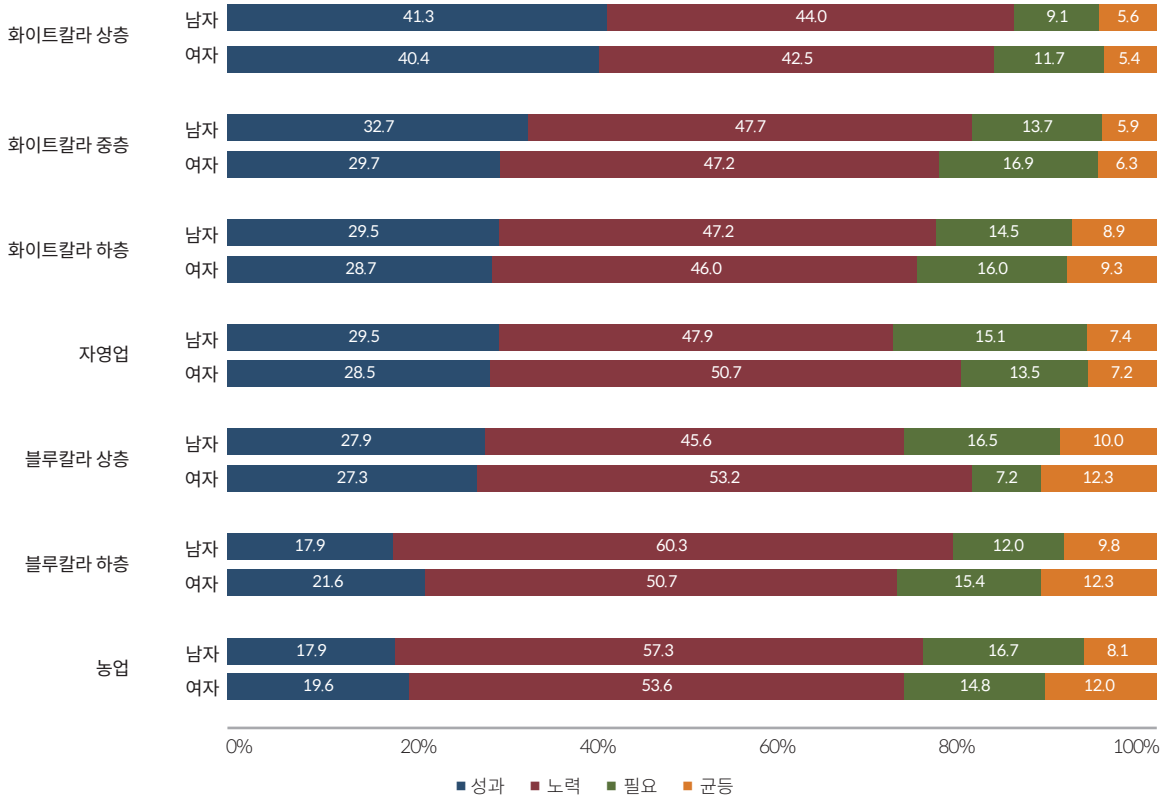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소득에 따른 차이([그림 5])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능력’ 강조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성과’ 강조 경향이 나타남.
- 흥미로운 것은 중간 수준 소득 구간(200~300만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임.
- 이것은 같은 수준의 소득 구간일 때에 여성이 남성보다 ‘성과’를 더욱 의식하고 있음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분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6]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직업지위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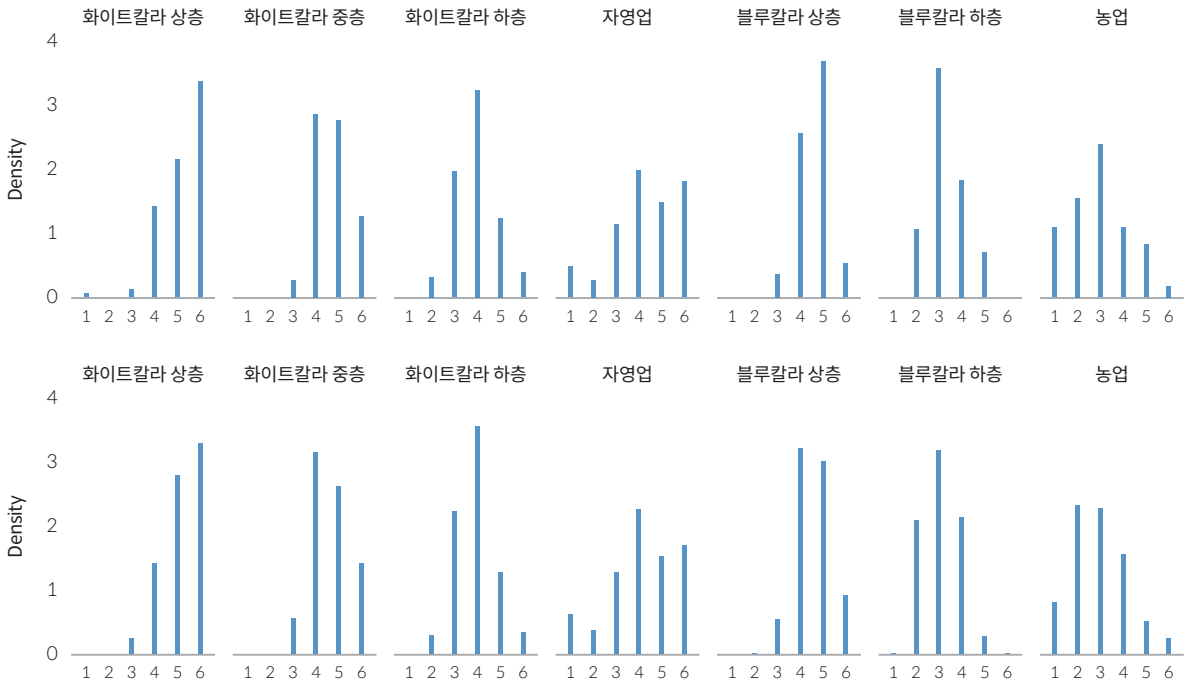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직업 지위에 따른 차이([그림 6])

- 직종과 고용상태 변수를 조합해 직업 지위를 7개 범주로 구분함. 1) 화이트칼라 상층(전문직과 관리직 임금노동), 2) 화이트칼라 중층(사무직 임금노동), 3) 화이트칼라 하층(판매직과 서비스직 임금노동), 4) 자영업자, 5) 블루칼라 상층(숙련직 임금노동), 6) 블루칼라 하층(비숙련직 임금노동), 7) 농업(농림수산업).⁴
-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성과' 비중이 큼. 특히 상층에서 그러함. 블루칼라층은 상대적으로 노력 쪽에 쏠려 있음.

⁴ 여기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른 것임. '고용상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됨. 직종이 '농업'인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지 않음. 직업 지위를 '상', '중', '하'로 구분한 것은 '직종'이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계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임. 한국의 직업 지위 체계상에서 각 직종의 위치는 유희준·김월화(2006)의 연구를 참조.

[그림 7] 직업 지위별 소득 분포



주: 위쪽은 이상적 자원분배기준으로 '성과'를 꼽은 집단이고, 아래쪽은 이상적 자원분배기준으로 '노력'을 꼽은 집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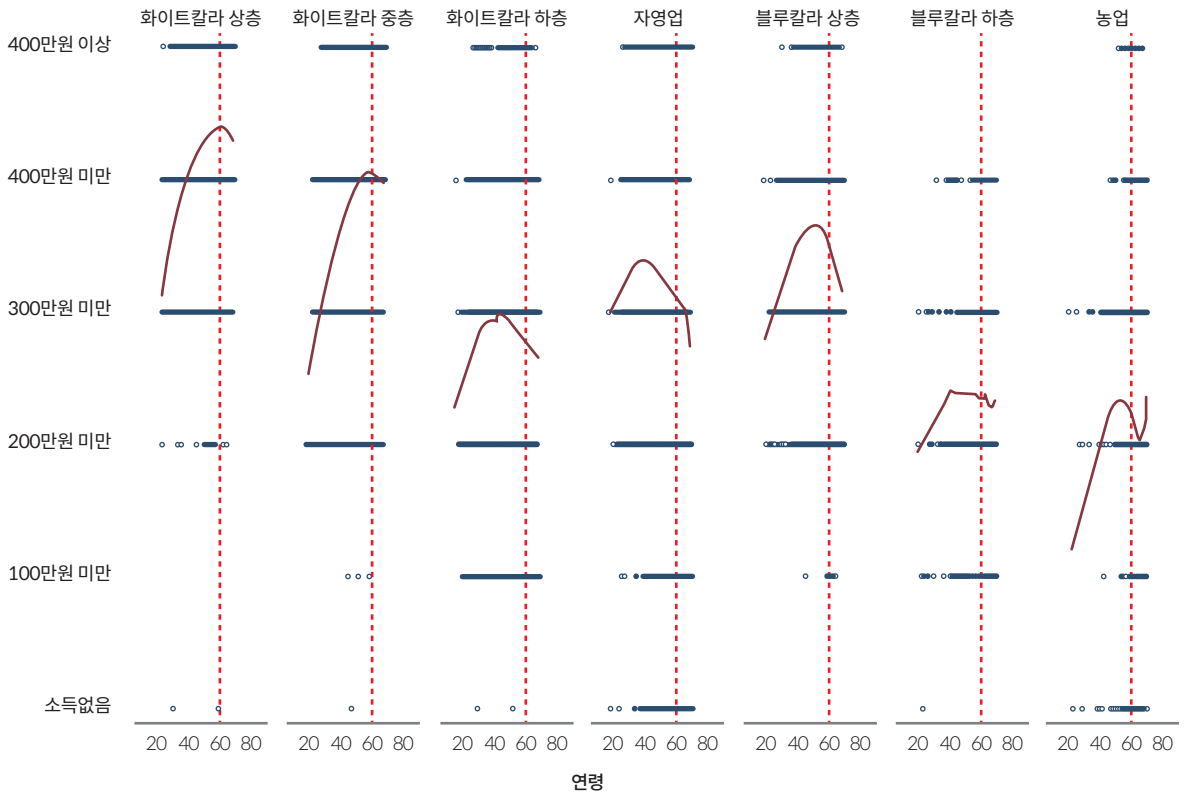
주: 1. "소득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6. "400만원 이상"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동일 직업 지위에서 '성과주의자'와 '노력주의자'의 차이

- [그림 7]은 같은 직종 내에서 '성과'를 택한 이들과 '노력'을 택한 이들의 소득 분포를 나타낸 것임.
- 성과주의자의 소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 수준이 높은 곳에서 '노력'을, 경쟁 수준이 낮은 곳에서 '성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음.
- 경쟁이 낮은 곳에서 성과를 말한다는 것은 그 경쟁의 성격이 전적으로 시험을 매개로 하는 '시험주의'(양승훈, 2021)에 가깝다는 것을, 그에 따른 성과라는 것이 일종의 "지대"(박권일, 2021: 124)와 비슷하다는 것을 함의함.

[그림 8] 연령과 소득수준의 관계(직업지위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성과주의자=연공서열 수혜자?
 - [그림 8]은 직업 지위별로 연령과 소득수준의 관계를 나타낸 것임.
 - 화이트칼라 상층의 특수성이 나타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월수입의 최저선이 올라감. 그에 반해 자영업은 물론이고 화이트칼라 하층에서도 월수입 최저선은 크게 변화가 없음.
 - 화이트칼라 상층에서 연공서열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화이트칼라 상층에서는 60대까지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다른 직업 지위에서는 소득 증가세가 그만큼 가파르지 않고 증가세가 꺾이는 시점도 이룸.
 - 수입이 진정 실력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먹으면 실력도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됨. 연령과 소득이 비례한다고 해서 소득 증가가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력이 일관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움. 실제로 직업 지위별로 경쟁 환경이 어떤지를 고려해야 함.
 - 한국의 경우 관리직이나 전문직에서 사무직이나 블루칼라로 '추락'하는 경우는 드뭄. 화이트칼라 상층 지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이 결과에서 도출해 볼 수 있는 함의 한 가지는 '성과'라는 것이 일정 수준에서만 지위와 관계 있다는 점임. 따라서 지위가 높은 이들이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일정 수준에서 정당화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이들의 지위가 성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표 2] 남성 유직자 전체(단위: %)

성과주의		본인			Total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아버지	중졸 이하	1.9	19.4	17.0	38.3
	고졸	0.1	3.7	41.1	44.9
	전문대졸 이상	0.1	0.3	16.5	16.8
Total		2.0	23.4	74.6	100.0 (1275)

노력주의		본인			Total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아버지	중졸 이하	3.6	23.2	17.5	44.3
	고졸	0.2	3.4	39.6	43.2
	전문대졸 이상	-	0.5	12.0	12.5
Total		3.7	27.1	69.1	100.0 (1960)

주: 괄호 안은 사례 수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 학력이라는 성과의 상속

- 한국사회에서 학력을 쌓는되거나 좋은 직종에 종사한다고 하는 경로는 ‘노력하면 되는’ 길로 여겨져 옴. 이런 점에서 화이트칼라 상층 대부분이 성과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것임.
- 그렇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아버지와 본인 모두 학력이 높은 사람 중에 노력을 택한 이도 많고 필요를 꼽은 이도 상당 비중으로 있음.
- [표 2]는 이상적 자원분배기준 문항에서 성과주의를 표방한 집단의 아버지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그들의 고학력은 아버지의 고학력을 이어받은 것임. 교육사회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들도 다른 종류의 자산의 ‘상속자’임.

V. 선발 시스템의 빛과 그늘

□ 능력주의에 대한 양가적 시선

- 현실은 성과주의, 이상은 노력주의
 - 한국인 전체로 보면 이상으로는 노력주의가 다수파인데 현실의 이미지로는 성과주의가 다수파임.
 - ‘현실은 성과주의, 이상은 노력주의’라고 하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성과 지향의 표명이 오늘날 한국인이 떠올리는 ‘능력주의’의 모습임.
-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뿐이라서...
 -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신앙이 백 퍼센트 믿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줌. 그렇다고 해서 ‘노력주의’ 신앙이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도 아님.
 - ‘노력해도 별수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으면서도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학교나 회사의 선발 레이스에 자신과 자녀를 참가시켜 온 것이 전후 한국인 모습임.

□ 시험주의의 빛과 그늘

- 시험주의의 빛
 - 형식적 기회를 확장할 수 있었던 과거에는 ‘능력주의’가 (정치 참여, 효능감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음.
 - 표준화된 경쟁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사회는 사람들의 사회이동의 열망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역동을 창출해 옴.
 -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중간 수준의 일반 숙련을 갖춘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방식의 선발 체제가 일정한 순기능을 수행했음.
 - 그 과정에서 한국의 능력주의는 곧 시험주의(박권일, 2021)가 됨. 형식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넓어졌지만 경쟁의 조건이 평등해진 것은 아님.
- 시험주의의 그늘
 - 최근에 능력주의라는 말이 비판을 받는 것은 ‘능력’이 근대 초기에서와 같은 의미를 더 이상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임.
 - 부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가운데에 단일한 경쟁 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과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실질적 기회 격차 증대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른 자원 분배 논리를 무맥락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과의 불평등을 커지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낼 수 있음.
 - 근본적으로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동일 가치 체계로 편입시켜 사적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 여전히 부족한 것은 기회의 평등?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 대안은 기회의 평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결과의 불평등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뉨.
- 가난한 집 자식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의 주장이라면, 소위 능력이라고 측정되는 잣대에 따른 결과의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후자의 주장임.
- 형식적으로 기회를 넓힐 여지가 줄어든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경쟁의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경쟁의 수준을 심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결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피시킨(2016[2014])은 경쟁의 병목(Bottleneck) 자체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모든 계층이) 그것을 같은 확률로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함. 기회 구조 자체가 그러한 형태로 굳어진 맥락에 주목해 병목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사회가 제시하고 동시에 병목(통과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임.
- 사회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삶의 영역(물리적, 물질적, 관계적)에서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줄 제도를 마련(주거권 보장,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75-82).
- 이러한 관점에서 15세 이상 한국인의 4명 중 1명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필요’나 ‘균등’을 꼽았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음.

○ ‘능력주의’에서 ‘능력’을 떼어 내 본다면?

- 오늘날 능력주의의 강조는 성과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아니라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바람의 반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공정’ 요구 담론을 마냥 보수화된 입장으로, 계도되고 계몽되어야 할 어떤 (잘못된) 이념으로 보지 않을 필요가 있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동원해서 ‘성과주의’를 은연중에 부과하려는 시도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능력주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가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님. 궁극적으로는 노력-성과의 관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그러한 환경은 ‘노력하면 된다’라는 신앙을 강제하는 것으로는 만들 수 없음. 시험주의 체제에서 노력 강조는 결과적으로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 각자의 자질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능력주의는 결과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필요’와 ‘균등’의 논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시 말해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라는 조건을 떼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름.

참고문헌

-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 김희삼. 2018.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 『KDI Focus』 91:1-8.
- 마이즈, 존(John Myles). 1992[1989]. 김혜순 옮김. 『복지국가의 노년: 공적 연금의 정치경제학』(Old Age in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Pensions). 한울.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 사토 도시키(佐藤俊樹). 2014[2000]. 이경희 옮김. 『불평등 사회, 일본』(不平等社會日本—さようなら總中流). 한양대학교 출판부.
- 양승훈. 2021. “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신양명’이자 ‘합격주의’다.” 『시사인』 720호(7월 6일자).
- 에스핑-안데르센, 요스타(Esping-Andersen, G). 2007[1990]. 박시종 옮김.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6):153-186.
- 조한혜정·엄기호·최은주·천주희·이충한·이영룡·양기민·강정석·나일등·이규호. 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창비.
- 피시킨, 조지프(Joseph Fishkin). 2016[2014]. 유강은 옮김.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문예출판사.
- 허종호·민보경·이채정·이상직.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47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6.13.
48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7.11.
49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7.25.
50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8.8.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